

국학자료원/A5신/630면 내외/180,000원

‘농민 문학의 선도자’로 평가받는 소설가 이무영(李無影, 1908~1960)의 40주기를 맞아 《이무영 문학 전집 (전6권)》(국학자료원)이 출간됐다.

이 전집에는 그의 대표작인 《농민》〈제1과 제1장〉 등을 비롯해 장편 8편, 중편 4편, 단편 47편이 실렸다. 이와 함께 일기·콩트·희곡·산문과 〈소설 작법〉 등 그의 문학적 전모를 알 수 있는 글들도 수록했다. 각 권에 김봉균·이동희 등 5인의 평론과 구상·이헌구 등의 회상기를 실고, 미망인 고일신씨(84)의 인터뷰까지 엮어 이무영의 작품세계와 인간적 면모를 두루 살필 수 있도록 꾸몄다.

이무영의 작품들은 1975년 이미 《이무영 대표작 전집》(신구문화사)을 통해 이미 정리된 바 있다. 당시의 전집이 ‘농민 작가로서의 무영’을 부각시켰다면, 이번에 출간된 전집은 “농민 작가로서의 정신과 더불어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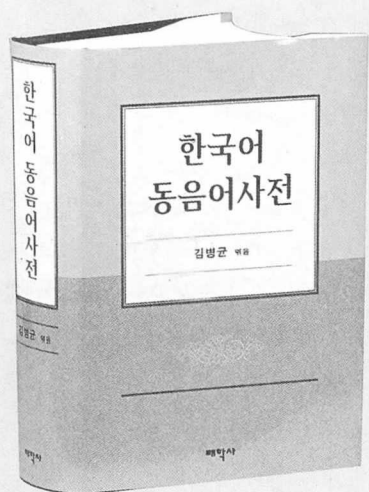
## 《이무영 문학 전집 (전6권)》 나와 소설 59편·희곡·산문 등 이무영 문학 총망라

류 보편적 작가 정신”을 새롭게 부각시켰다는 것이 편집위원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1권과 2권은 농민 문학의 진수를 보여주는 소설들을 실고, 3권부터는 개인·사회·국가·인류 등 보편적 ‘모텔’을 추구한 문학 작품을 주제별로 엮었다.

이번 전집은 시인 구상을 비롯한 5인의 편집위원과 이무영의 유족이 3년동안 준비한 끝에 맺은 결실이다. 특히 이무영의 미망인 고씨는 원고를 10여차례 직접 읽고 오기(謄記)를 바로잡았다.

구인환 편집위원은 “무영선생은 농민과 직접 더불어 살면서 문학과 삶이 일치했던 작가”라며 “이번 전집의 출간이 무영선생의 문학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월 21일 이무영의 40주기를 맞아 제1회 ‘무영 문학상’이 제정됐다. 이 상은 《동양일보》가 이무영의 고향인 충북 음성군의 후원을 받아 제정한 것으로, 제1회 수상자는 이동희씨로 결정됐다. 시상식은 기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구제역 파동’으로 일시 연기됐다. - 김정은 기자



태학사/A5신/1474면/60,000원

기도 하지만, 의사소통과정에서 오해와 혼란을 빚기도 한다”면서 “이 책이 동음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전에 수록된 표제어는 남북한의 일반어와 전문용어, 고유명사, 방언

전문사전을 다수 출간한 대학사가 이번에는 동음이의어를 집대성한 《한국어 동음어사전》을 국내 처음으로 선보였다. 편저자인 김병균 교수(선문대 국어국문학과)는 “동음이의어는 언어생활의 폭을 넓히

## 국내 처음 선보인 《한국어 동음어사전》

북한어 포함해 통일시대 대비

등 8만여개. 각각의 표제어에 대한 정보는 원어·품사·전문 영역·뜻풀이 등으로 제시했다. 뜻풀이는 표제어간 구별에 초점을 맞춰 짧고 간결하게 처리했다.

이 사전의 두드러진 특징은 표제어에 북한말을 포함시킨 점이다. 북한말은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가 펴낸 《조선말대사전》을 참조했다. 김교수는 “통일 후 남북한 언어가 같이 사용될 때 동음어 때문에 일어날 혼란에 대비하기 위해 북한어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 증보판에서는 표제어의 발음과 이철동음어(異綴同音語)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교수는 그동안 동음어의 생성요인, 동음충돌 해소의 구조양상과 원리 등을 연구해 왔으며, 지난 1996년 《국어 동음이의어연구》를 펴낸 바 있다. - 김정은 기자